

FY2019 지방재정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총평

FY2019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년도에 이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재정효율성 및 계획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급격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상의 불확실성 확대 등 위험관리를 위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계획성 등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유도 필요함

재정건전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노력에 따라 채무 및 부채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편, 다만 COVID19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는 필요함

재정효율성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등 외부지원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표값은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출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체납액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됨

재정계획성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은 특·광역시와 자치구의 경우,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광역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에 대한 지출 압박 증가로 지표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군 자치단체들의 경우 투자사업 지연 및 계획변경, 투자심사 통과 등 영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정사업의 예산반영이 100%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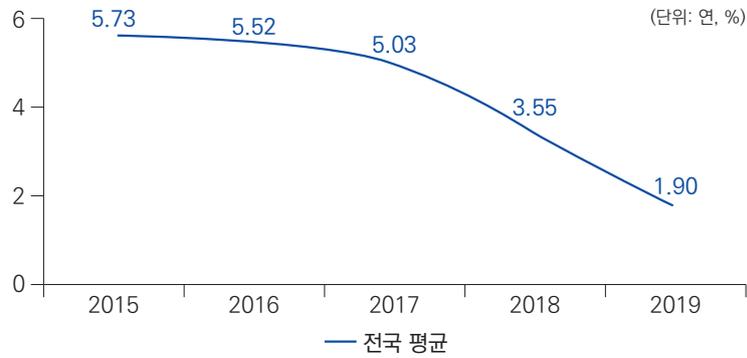
○ 분야별 결과

1. 재정건전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출 증가 영향으로 재정수지 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운영에 대한 노력으로 채무 및 부채 측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양호한 실적이 나타남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0%이며 지출과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3.55% 대비 1.65%p 하락함
-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의 경우 '17년 13조 → '18년 9.6조 → '19년 6.0조 나타나며, 전년도 대비 전반적인 지출 증가로 인한 통합재정수지비율 하락 추세 나타남



〈그림 1〉 통합재정수지비율 시계열 추이(전국 평균)

채무 및 부채관리

- 관리채무비율: '15년 10.98% → '16년 9.33% → '17년 8.06% → '18년 7.35% → '19년 6.54%
- 통합유동부채비율: '15년 27.98% → '16년 26.10% → '17년 23.01% → '18년 23.26% → '19년 22.66%
- 공기업부채비율: '15년 65.07% → '16년 57.93% → '17년 41.58% → '18년 37.26% → '19년 34.44%

시사점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환경변화에 따라 재정지출의 규모가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통합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세출관리 모니터링 실시 필요함
- 2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 기초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채무 및 부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관리 등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필요함

2. 재정보율성

출자출연전출금 등 외부지원관리의 효율성 강화 노력에도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체납자 밀착관리 등 맞춤형 징수관리에도 불구하고 '19년 체납액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징수관리

- 체납액증감률[지방세]: '15년 4.61% → '16년 2.45% → '17년 -2.41% → '18년 -5.44% → '19년 -4.24%
- 체납액증감률[세외수입]: '15년 0.98% → '16년 -4.34% → '17년 -2.76% → '18년 -5.41% → '19년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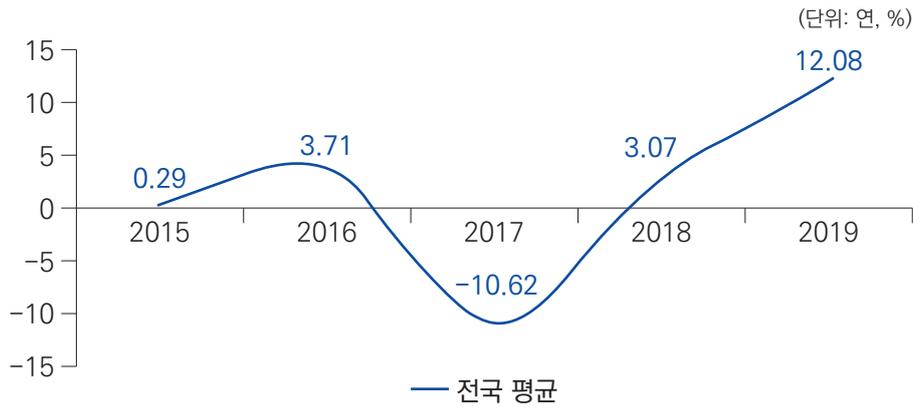
〈그림 2〉 체납액증감률[지방세] 시계열 추이(전국 평균)



〈그림 3〉 체납액증감률[세외수입] 시계열 추이(전국 평균)

외부지원관리

- 지방보조금증감률: '15년 0.29% → '16년 3.71% → '17년 -10.62% → '18년 3.08% → '19년 12.08%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5년 19.34% → '16년 0.64% → '17년 10.10% → '18년 4.28% → '19년 14.30%



〈그림 4〉 지방보조금증감률 시계열 추이(전국 평균)



〈그림 5〉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시계열 추이(전국 평균)

시사점

- ① 지역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납액증감률(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가 나타나며 맞춤형 징수정책 발굴 등 지속적인 징수관리 노력이 필요함
- ② 전년도에 비해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외부자원관리를 위해 출자출연전출금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 재정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재정계획성

재정계획 관리

- '19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전국 평균이 101.96%이며 특·광역시 평균(104.44%)이 도 평균 (100.73%) 및 시 평균(100.44%) 보다 높음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 이상이라는 의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의 편성을 의미하며 특·광역시(104.44%)와 자치구(102.98%)에서 높게 나타남
 -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라 시비부담 증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 증가 영향 나타남
 - 군평균(91.92%)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정사업의 예산 반영이 100%에 미달됨(투자사업 지연 및 계획변경, 투자심사 등)
- '19년 세수오차비율의 전국 평균이 92.51%이며 특·광역시 평균(95.07%)은 도 평균(93.00%), 시 평균(93.55%), 군평균(91.23%), 및 자치구 평균(92.79%)보다 100에 근접하여 특·광역시의 세수예측이 더 정확하게 나타남
 - 우수 단체를 중심으로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다년간(5~6년간)의 세목별 동향을 분석하고 회계연도별 세수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함(예, 취득세에 대한 부동산 거래 동향분석, 대형건축물 준공시기, 공동주택 입주율 등)

재정집행 관리

- '19년 이불용액비율의 전국 평균이 7.79%이며 도 평균(2.56%)이 특·광역시 평균(6.55%), 시 평균(11.78%), 군 평균(10.00%), 자치구 평균(9.33%)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임
 - 자치단체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사·정리한 후 추경을 통하여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삭감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함

시사점

- ① 재정계획의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세수추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함
- ② 재정집행 측면에서 자치단체 불용액 감소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투자사업 추진 중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준비 등 투자심사과정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 참고자료 : 2020년(FY2019)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및 자치단체별 보고서

[원문보기](#)

▶ 내용문의 : 이장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73, janglee@krila.re.kr)

▶ 지난해 : 지방자치단체 자율·창의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전성만 부연구위원)

[원문보기](#)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